

공동체 소식



연중 제30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본당 총구역회

- 일 시: 오늘 교중미사 후.

본당 총구역회

- 일 시: 10/23(주일) 교중미사 후.

‘스톤 채플(Stone Chapel)’ 건물보수기금 모금에 정성껏 협조바랍니다.

- 기준금액: 300불/1가정 이상.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 장 소: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50	212	168	6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 주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유수경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16	74명	343불	910불
현교정, 이영민, 김진미, 박재천, 김화년, 정석원, 문석찬, 유영운 (총 8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600불, 총합계: 5,400불		



성인 말씀

하느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멀리 갈수록
여러 갈래의 길이 뻗어 있음을 안다.

- 오리게네스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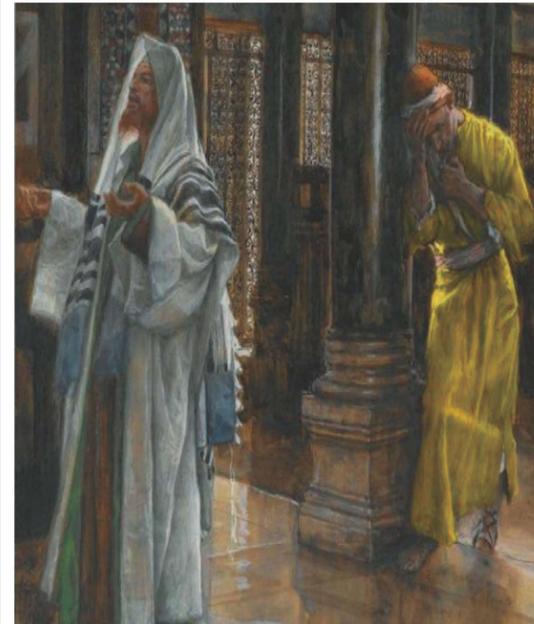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1사무 16,7참조)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재산, 신분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내면의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돌아봅시다.

성화해설

바리사이와 세리 (제임스 티소, 1886-1894년, 브룩클린박물관 소장)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루카 18,13)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세리는 오직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 자신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세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하느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하신 까닭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5,15ㄴ-17,20-22ㄴ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중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젖값을 벗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4,6-8.16-1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9-14
<바리새자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쉐 마

‘전교’는 우리의 사명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전교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마태 28,19-20)으로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창세 12,2).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로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에페 1,1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던 일, 곧 말씀과 행적으로 모든 이들을 가

르쳐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2독서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선포하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모여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곧 모든 이를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혹 잘못된 방법으로 전교하게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일에 오히려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교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전교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복음의 기쁨을 다른 이와 나누는 일에 다시금 동참하겠다고 다짐합시다. 만약 우리가 전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라 불릴 것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종교개혁을 실시한 요시아 왕

아몬 왕은 이십 이 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을 두 해 동안다스렸습니다. 그는 부왕 므나세가 했던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즉 부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궁전 안에서 그를 죽이고 여덟 살이었던 어린 나이의 왕자 요시아를 왕으로 모셔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31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어떤 정치를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21,19-22,2

요시아 왕은 당대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보대신 사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전 수리 책임을 맡은 대사제 힐키야는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책을 사관 서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관 서기관은 임금 앞에 나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왕은 그 법전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22,3-13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여예언자 홀다에게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홀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을 나에게 보내신 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전하십시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로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왕과 함께 무

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으므로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예언자의 말을 들은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22,14-23,3

요시아 왕은 선대 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 지역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겨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개혁은 자기 스스로를 고친다는 점에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자신의 뼈를 깎아내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현상을 적당히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고서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아 왕은 용기와 정의감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군과 싸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최후를 장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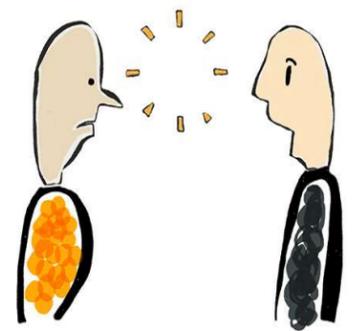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반대로, 반대로.

의심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닐 거야.
 의심하다가 믿으면 더 잘 믿지 않을까?
 반대로
 믿는다는 건 항상 옳은 걸까?
 믿어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믿는 둥 마는 둥이면
 믿음의 의미가 있을까?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